

‘내집연금 3종세트’로 고령층 가계부채 경감

금융위, 2025년까지 부채부담 22조원 감소 예상

생애 주기·소득별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내달 25일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약 22조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 효과를 지닌 내집연금 3종세트를 4월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50~60대의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각각 23.6%, 13.1%였던 50대와 60대의 가계부채 점유 비중은 지난해 29%, 18.3%로 증가했다. 20~40대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한 것과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을 다소 늦은 1988년 도입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이 미흡한 상태다.

독일(1889년), 영국(1908년), 미국(1935년), 일본(1942년) 등 선진국에 비하면 제도적 안정감이 떨어진다.

또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 은퇴 후 실제 생활에 사용할 유동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50대와 60대의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4%, 82.4%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40대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급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할 경우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 가능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부담이 더욱 수월할 수 있도록 했고 제2금융권 주택대출 이용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 인출을 통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은행의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20→10bp)을 통해 연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 상환가능금액을 증가시켰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가입 유인을 확대했다.

보급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급자리론 이용자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보급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상품이다.

신규 보급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을 약속하면 보급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받는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급자리론으로 전환해도 15b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



T-SDN 상용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KT가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이하 T-SDN)를 전국 상용화에 기존보다 약 100배 빠른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이 8~15% 정도 높은데 고령일수록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80세를 예로 들면 현행 1억원 주택기준 월 지급금이 48만9000원이었던 개선 후에는 55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22조 2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령층 주택담보의 14조2000억원과 분할상환에 따른 원리금 8조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다양한 계층에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2만6000명

수준인 누적 가입자가 2025년에는 48만명까지 매년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소비진자 효과는 약 1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전산개발, 창구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추후 다양한 경로로 주택연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이는 기본 취지를 널리 홍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소형 SUV 시장 경쟁 ‘치열’

국내에서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니로’를 출시하고 피아트도 500X를 내세워 국내시장에 진출한다.

기아자동차는 자사의 첫 하이브리드 소형 SUV인 니로를 이달16일 공개한 후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니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니로는 친환경차인 동시에 현대·기아차에서 내놓은 최초의 소형 SUV다. 현대·기아차가 국내 자동차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산 소형 SUV 시장은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3개 업체들의 독무대였다. 한국GM이 2013년 쉐보레 트랙스를 출시한 데 이어 르노삼성이 2014년 QM3를 내놓았다. 쌍용차는 지난해 초 티볼리를 내놓고 무서운 속도로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티볼리는 쌍용차의 부활을 이끌어낸 효자 모델로 꼽힌다. 쌍용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티볼리를 4만5021대나 판매했다. 티볼리 판매량이 쌍용차의 지난해 총 판매량(9만9664대)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다.

르노삼성의 QM3도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2만4560대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QM3는 르노삼성의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다.

한국GM의 트랙스도 지난해 1만2727대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판매량이 2014년(1만868대)보다 23% 늘어났다.

이처럼 소형 SUV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현대·기아차도 경쟁에 가세했다.

수입업체들도 소형 SUV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FCA코리아는 이달 24일 이탈리아 브랜드 피아트의 소형차인 500의 외형을 기본 소형 SUV 500X를 출시했다. FCA코리아는 피아트 500X를 내놓으면서 공개적으로 BMW 미니의 컨트라편을 경쟁 대상으로 지목했다.

피아트 500X의 판매 가격은 3140만~4000만원이다. 미니 컨트라편(3860만~5740만원)보다 낮게 책정됐다.

미니 컨트라편은 국내시장에서 소형 SUV 차종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판매량이 2000대 인입으로 미니 브랜드의 전체 판매량(6000~7000대)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프리미엄급 중저가폰 쏟아져 소비자 ‘환영’

애플·LG전자·삼성 등 출시

지난해 불붙었던 중저가폰 전쟁이 해를 넘기며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프리미엄폰의 자존심을 지킬 것 같았던 글로벌 IT기업 애플까지 중저가 시장에 뛰어들었다.

애플은 4인치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를 4월부터 전 세계에 4차례에 걸쳐 출시한다. 한국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3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4월 초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되고 배송은 중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폰 SE’는 외형이나 크기는 2013년 출시된 아이폰5S와 비슷하다. 기능은 지난해 나온 아이폰6S를 따라갔다. 가격은 16GB 제품이 399달러(약 46만원), 64GB가

499달러(약 57만원)다.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던 아이폰이 최초로 출시한 보급형 제품이다.

애플이 중저가폰에 주목한 이유는 기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와 정체된 실적에 따른 선택이다.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프리미엄폰의 고성능이 이미 포화 상태라 가격 전략으로 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내 기업들도 중저가폰 출시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5를 출시하기도 전에 보급형 라인인 X 시리즈를 내놨다.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6에서 선보였던 X 시리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기능을 모델별로 각각 탑재

했다. 세컨드 스크린을 장착한 X 스크린과 듀얼 카메라 기능의 X 캠(cam) 등이 다.

삼성전자도 곧 중저가 브랜드 A시리즈와 J시리즈의 후속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모델에만 지원한 기능을 중저가폰에 넣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삼성페이’가 대표적인데, 이경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올해도 갤럭시 A와 J 시리즈의 후속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중저가 제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삼성이 중저가폰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은행연합회, 아시아금융협회 가입

허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아시아금융협력 협회(Asian Financial Cooperation Association·AFCA)의 가입동의서에 서명했다고 27일 은행연합회가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회장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2016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금융금융 성공사례를 소개한 뒤 다음날(25일) AFCA 설립을 위한 첫 회의에 참석했다. 보아오포럼은 매년 3·4월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국제회의로, 지역협력력을 통한 아시아의 경제발전 등에 논의한다.

은행연합회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발언권을 확대하는데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중국·홍콩·아랍 은행회 등 38개 금융기관이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 ‘친구API’ 특허권 주장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을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 게임을 메신저 친구에게 추천하는 ‘친구API’ 글로벌 특허를 갖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5일 카카오톡 제주도 본사에 자사 특허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일본에 있는 라인주식회사,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특허권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권 분쟁의 핵심인 친구API는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기반의 게임 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라인게임 등이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특허관리전문회사 K-이노베이션을 설립, 특허권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총 77여건에 이르는 글로벌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국내 게임사 중 최다 기록이자 글로벌 게임사들 중에서도 코나미, 남코, 세가, 스퀘어엔릭스에 이은 보유 특허 건수 5위에 해당된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